

#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4

## 모잠비크(Republic of Mozambique)

### I. 일반개황

면적	799.4천 km <sup>2</sup>	G D P	89억 달러(2008년)
인구	21.8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397 달러(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etical (MT)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24.3 (2008년)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21.8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접경하고 있음.
- 1인당 GDP가 400 달러 미만에 불과하고,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저개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노력, 각종 규제 완화, 민영화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체제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제성장률	7.7	8.5	7.4	6.8	5.2
재정수지/GDP	-2.2	-1.4	-3.0	-2.7	-5.1
소비자물가상승률	11.9	9.4	10.3	6.2	8.2

자료: IMF, EIU

#### □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세 유지

- 2005-08년 모잠비크 경제는 농업, 운송업 및 통신 산업의 호조세, 알루미늄,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에 대한 FDI 증대,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 하였음.
- 2009-10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의 호조세와 원조 및 FDI의 유입 확대, 주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각각 5.2%, 6.1%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주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는 2010년 Moatize 석탄 개발(15억 달러), 2011년 Benga 석탄 개발 프로젝트(800백만 달러) 등이 있음.

####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꾸준한

지출 증가로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5-08년 동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2.3% 수준을 기록하였음. 현재 모잠비크 재정지출 재원의 3분의 1 가량이 19개국의 원조국을 통해 조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세수기반 확충 및 대외 원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세수입의 비중을 2008년 45.7%에서 2011년에는 55.7% 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09-10년에는 원조국의 공여 증대와 지속적인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의 임금 개혁, 연료 보조금 확대, 국가 식료품 생산계획(National Food Production Plan 2008-2011)의 실행, 대통령 선거 실시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수입을 지속 상회할 것으로 보여, 동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5% 수준으로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 상승세

- 소비자물가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와 국제 식량위기의 영향으로 2005-07년 연평균 10.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가 한 자릿수인 6.2%로 다소 개선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2009-10년에는 대선 및 의회선거 실시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회복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각각 6.5%, 6.2%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 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균형 잡힌 경제구조

- 모잠비크는 농업 또는 에너지 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는 달리, 농업, 제조업, 수산업, 관광업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가 국가 총 생산에 비교적 고르게 기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서비스산업이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GDP의 45.9%)하고 있으나, 노동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농업이 국가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 : 서비스업(45.9%), 제조업(30.7%), 농·수산업(23.4%)

###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모잠비크는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티타늄, 금, 석탄, 보크사이트 등이 채굴되고 있으며, 철,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의 자원 또한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04년 세계은행은 동국의 지지부진한 광업개발이 지질학적 정보의 부재, 광업 관련 투자법 등 제도적 기반 부족, 낙후된 경제 인프라,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량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아프리카 개발은행과의 협력 아래 2004년부터 지질조사 실시를 지원하는 한편, 광업 부문의 투자절차 수립 등을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음.

## □ 천연가스 개발 잠재력 풍부

-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확인되어 시추작업이 한창이며, 노르웨이의 Norsk Hydro社, 미국의 Anadarko Petroleum社, 이태리의 ENI社, 말레이시아의 Petronas社를 비롯한 세계 메이저 석유 업체들이 모잠비크 해역에서 시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향후 발견될 천연가스는 이미 구축된 파이프라인을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공급 되거나, 모잠비크 내 건설될 신산업단지 내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 수력발전 개발 가능성도 풍부

- 수력발전 부문 또한 모잠비크를 통해 인도양으로 흐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 4번째로 긴 강인 잠베지(Zambezia)강 유역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현재 모잠비크 내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카호라 바싸(Cahora Bassa) 댐 또한 잠베지 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잠베지 강 개발을 통해 10,000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능력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로서는 모잠비크는 총 인구의 약 8%만이 전력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등 전력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음. 현재 대대적인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며, 카호라 바싸(Cahora Bassa) 댐 발전소에서 모잠비크 주요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 사업이 2007년말 완공되어 2001년 약 1만 5천 가구에 불과하던 전기 보급률은 2007년에는 약 41만 가구까지 확대되었음.

## [정책성과]

###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Mega Projects) 추진 활발

- 정부는 최근 수년간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Mega-projects)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00년 사상 최대 규모인 13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통해 Mozal 알루미늄 제련소를 Maputo 인근 지역에 설립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Saol 파이프라인(13억 달러)을 구축, 최근에는 Moatize 석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12억 달러)를 추진 중에 있음.

#### □ 열악한 기업환경

- 200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의 기업환경지표에 따르면, 동국은 총 178개국 중 134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GDP 규모가 유사한 보츠와나(45위), 나미비아(66위), 잠비아(90위)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취약한 내수시장과 높은 거래비용, 과거 공산정권 하에서 비롯된 관료 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미비 등이 열악한 기업환경의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e</sup>
경 상 수 지	-761	-773	-785	-975	-876
경 상 수 지 / GDP	-11.5	-11.0	-10.1	-11.0	-9.2
상 품 수 지	-497	-268	-399	-805	-1,105
수 출	1,745	2,381	2,412	2,653	1,990
수 입	-2,242	-2,649	-2,811	-3,458	-3,095
외 환 보 유 액	1,054	1,156	1,445	1,578	1,981
총 외 채 잔 액	4,507	2,985	3,104	3,212	3,588
총 외 채 잔 액 / GDP	68.3	42.6	39.8	36.1	37.8
D . S . R .	5.7	2.3	2.1	2.5	..

자료: IMF, EIU

####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기조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알루미늄 및 천연가스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5-08년 동국의 경상수지 적자기조는 GDP의 11% 수준을 기록함.
- 2009-10년에는 대규모 석탄 광산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원자재 수입(輸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동국의 주요 수출품인 알루미늄의 국제 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대외 원조의 확대로 경상이전수지의 흑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기조는 각각 9.3%, 6.6%로 축소될 전망이다.

- 상품수지 : -4억 달러('07) → -8억 달러('08) → -11억 달러('09)
- 소득수지 : -5.9억 달러('07) → -6.3억 달러('08) → -3.6억 달러('09)
- 서비스수지 : -4억 달러('07) → -4억 달러('08) → -3.3억 달러('09)
- 경상이전수지 : 6억 달러('07) → 8.5억 달러('08) → 9.3억 달러('09)

## [외채상환능력]

### □ 외환보유액 증가, 점진적 외채구조 개선

- 외환보유액은 동국의 자원개발, 운송, 통신, 관광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원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5년 약 11억 달러에 달하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는 16억 달러까지 꾸준히 확대되었음.
- 외채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외채부담이 매우 심각하였으나, 1999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37억 달러의 공적외채 부담을 덜은 데 이어, 2001년 30억 달러의 추가적인 부채 탕감 효과를 누린 바 있음. 2006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를 체결하여 29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 받는 등 외채 상황이 지속적인 개선추세에 있음. 그 결과, 2005년 45억 달러(GDP의 68.3%)에 달하던 동국의 외채규모는 2008년에는 32억 달러(GDP의 36.1%)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D.S.R.도 최근 수년간 2%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단기간 내에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GDP : 78억 달러('07) → 89억 달러('08) → 95억 달러('09)
  - 총 외채잔액/GDP : 39.8%('07) → 36.1%('08) → 37.8%('09)
  - 외채상환비율(D.S.R.) : 2.1%('07) → 2.5%('08)

### III.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체제 지속

- 現 집권 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은 당의 지도자이자 모잠비크 초대 대통령인 사모라 마셀(Samora Machel)을 시작으로 반군세력 민족저항(Renamo)과의 내전을 평화협상으로 이끈 호아킴 치사노(Joaquim Chissano)를 거쳐,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아르만도 궤부자(Armando Guebuza) 現 대통령에 이르는 장기집권체제를 지속하고 있음.
- 지난 2009년 10월말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現 궤부자 대통령이 재선 되면서 민주전선의 집권체제가 이어짐. 이전 임기동안 당내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걸쳐 권력을 공고히 해온 궤부자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에도 반대세력을 견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선거 이후 능력 기반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여전히 궤부자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한 자격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최근 들어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 고조

- 한편, 민주전선(Frelimo)의 근거지인 모잠비크 남부지역 출신들이 정치 및 경제적 이권을 독점함에 따라 야당인 민족저항(Renamo)을 포함한 소외집단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2001년 국영은행인 방코 오스트럴(Banco Austral)의 부정사건 스캔들에 사회지도층 인사가 연루되었고, 2004년 대선을 포함한 과거 수차례에 걸친 부정선거를 둘러싼 유혈 충돌이 발생하는 등 現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 동국은 독립 후 구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음.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서부 원조 공여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아공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해 왔음. 최근에는 중국이 주요 투자국 및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 주변국가와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교역, 투자, 관광, 이민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모잠비크는 그동안 남아공과 함께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최근 짐바브웨의 경제 붕괴 사태와 관련하여 그 역할이 부각되기도 하였음.
- 또한 앙골라, 짐바브웨와도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말라위와는 모잠비크의 나칼라(Nacala)항과 말라위 내륙을 잇는 Nacala Corridor 도로개보수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극심한 빈부 격차

- 모잠비크는 빈부 격차가 매우 큰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최근 정부가 빈곤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인력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중이나, 아직까지 총 인구의 80% 가량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극화된 소득 격차 해결이 동국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음.

#### □ 높은 AIDS 감염률

- 모잠비크의 AIDS 감염률(16%)은 주변국인 잠비아(17%), 남아프리카 공화국(19%)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나, 최근 들어 감염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모잠비크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500여명이 AIDS에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5년 42.8세에 달하던 동국의 평균 수명은 2010년에는 36세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약품 보급 확대를 위해 브라질이 모잠비크 내에 제약공장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나, 빈부 격차가 극심한 모잠비크의 실정 상 AIDS 약품을 구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매우 커, 가시적인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 現 정부에 대한 무력 충돌 발생 위험 상존

- 1992년 내전 종식 후, 약 8만 명에 달하는 군인이 무장 해제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시민사회에 편입되면서, 모잠비크 내 군사봉기에 대한 우려는 종식된 바 있음. 그러나 現 대통령이 야당 분쟁세력에 대해 강경진압 노선을 추구함에 따라, 기존의 정치 투쟁이 무력 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2008년 2월,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Maputo)의 빈민지역에서 대중 교통 요금의 50% 인상에 대한 반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력사용으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인근 상가가 약탈을 당하는 등 폭동이 발생하였음. 이는 1994년 민주 선거 이후 마푸토(Maputo) 지역에서 생긴 첫 소요 사태로,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함.

## □ 마약 밀수 등과 관련된 조직범죄의 우려

- 마약 및 총기류 밀수, 차량 절도에서 범죄조직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이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지난 2001년, 정부가 돈 세탁 방지 법안을 발효하기도 하였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음. 정부 고위층이 관여되어 있는 마약, 총기 밀수 사건들로 말미암아 동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아시아와 유럽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주요 교역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 (2008. 10) → 6등급 (2009. 10)
- ICRG : 79/140 (2008. 9) → 76/140 (2009. 9)
- I.I : 109/177 (2009. 3) → 131/177 (2009. 9)
- Euromoney : 94/186 (2009. 3) → 91/186 (2009. 9)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동국의 대외 의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및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를 통한 대규모 외채탕감에도 불구하고



## V. 종합의견

- 모잠비크는 농업, 운송업 및 통신 산업의 호조세, 알루미늄, 천연가스 등의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FDI 증대,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연평균 7%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만성적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국인 모잠비크는 알루미늄 및 천연가스 개발 등을 통한 수출산업 육성,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HIPC Initiative에 따른 채무 탕감, 그리고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원조 지원에 힘입어 외채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모잠비크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족전선(Frelimo)이 오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집권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現 정부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現 대통령의 강경노선에 대한 소외 계층의 불만이 잠재적 불안요소로 남아있음.

조사역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mailto:yeliekim@koreaexim.go.kr)